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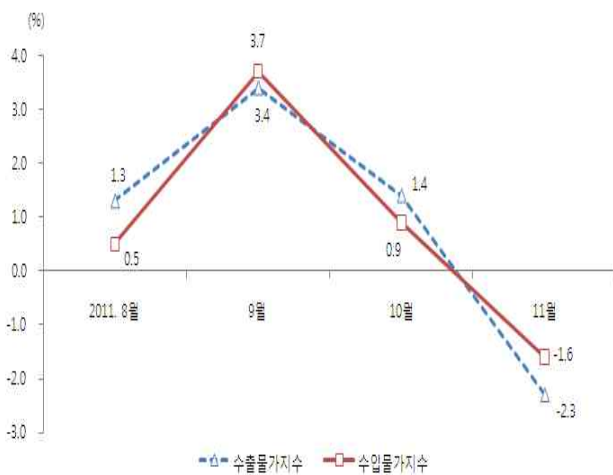
# 11월 수출입물가지수 전월 대비 하락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2011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가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며, 전년동기 대비로는 상승세가 둔화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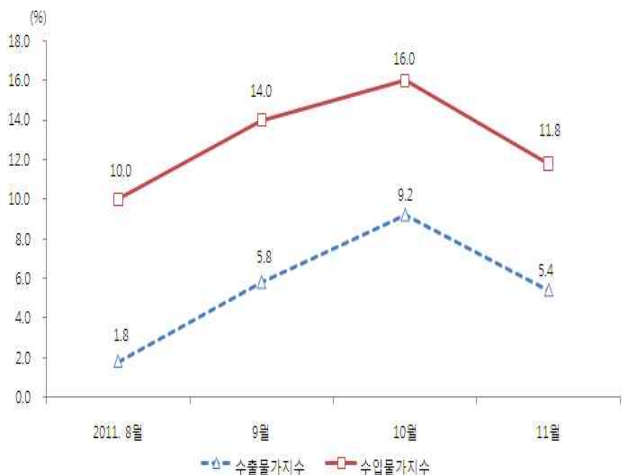
- 2011년 11월 수출물가지수는 원화 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.3% 하락함.
  - 품목별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농림수산물 전월 대비 4.1% 하락하였으며, 공산품이 석유제품을 제외한 화학·고무제품, 1차금속 제품, 운송장비 제품 등의 하락으로 전월 대비 2.3% 하락함.
- 수입물가지수는 중간재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함과 동시에 원화 가치도 상승함에 따라 전월 대비 1.6% 하락함.
  - 품목별 수입물가지수는 원자재의 경우 농림수산물 수입물가는 내렸으나 광산품이 올라 전월 대비 0.4% 상승하였으며, 중간재의 경우 석유, 화학, 철강 등 대부분 제품이 하락하면서 3.1% 하락하였고, 자본재 및 소비재의 경우 2.4%, 1.7% 각각 하락함.
- 전년동월 대비 11월 수출 및 수입물가지수는 각각 5.4%, 11.8% 상승하였으나, 11월 들어 동 상승률은 둔화됨.

〈그림 1〉 수출입물가지수 전월 대비 등락률



자료: 한국은행.

〈그림 2〉 수출입물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등락률



자료: 한국은행.

■ 세계경제 회복 지연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원화가치 상승이 나타나 수출입물가지수가 동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.

- 유로존 재정위기 등의 불안 요인으로 세계경기가 위축되면서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 대부분이 하락세를 나타냄.
- 원/달러 평균 환율의 경우 10월 1,155.5원에서 11월 1,132.3원으로 약 2%에 해당하는 원화절상이 있었으며, 12월 들어서면서 동 환율은 회복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.

(2011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, 한은, 12/13)